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3권 23편 최후의 부활

제3권 제25장 1-13절 (재료의 번역본 절 구분 기준)

? 죽으면 정말 끝인가요? 몸이 다시 산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게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죠?

 흐름 한눈에

칼빈은 3권 전체에서 설명한 구원이 결국 '부활'에서 완성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만 복음의 열매를 제대로 누린다고 말합니다(1-2절). 이어서 부활을 믿게 하는 두 기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전능을 세웁니다(3-4절). 그다음 부활을 흔드는 오류들, 곧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천년왕국론, 영혼이 죽는다는 생각, 새 몸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나씩 반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몸이 질만 바뀌어 다시 산다'는 결론을 세웁니다(5-9절). 마지막으로 악인도 부활하는 이유, 신자의 영원한 복과 그에 대한 쓸데없는 호기심, 버림받은 자의 영원한 형벌을 다루며 3권을 닫습니다(10-13절).

 절별 정리

최후의 부활에 대한 논증. 1-4

 1. 부활의 소망의 중요성과 장애 요인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가 그분이 나타나실 때 함께 드러납니다. 그 사이의 시간에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특별한 인내입니다. 주변의 고통과 불신자들의 조롱, 사방에서 밀려오는 유혹 때문에 이 길은 어렵고, 그래서 믿음이 드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활을 습관처럼 묵상하는 사람만이 복음에서 참된 유익을 얻습니다.

1. 신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보지 못한다
2. 지금은 '감추어진 생명'을 품고 기다리는 때다
3. 기다림에는 비상한 인내가 필요하다
4. 고난·조롱·유혹이 마음을 땅에 묶으려 한다
5. 부활을 늘 묵상해야 복음의 열매를 누린다

말라기 4:2

그리스도를 '의로운 태양'으로 소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디모데후서 1:10

그리스도가 죽음을 폐하고 생명을 드러내심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요한복음 5:24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에베소서 2:19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니 그의 성령 안에서 함께 건축되고 함께 지어지며 그의 영광 안에서 함께 나타나리라

에베소서 2:6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로마서 8:25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 11:1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고린도후서 5:6

몸에 있는 동안은 주와 떨어져 있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골로새서 3:3-4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남

³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디도서 2:12-13

지금은 바르게 살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때

¹²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¹³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기뻐하며 구원의 끝을 기다림

⁸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⁹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골로새서 1:4-5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인 소망과 이어져 있음

⁴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⁵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마태복음 6:21

보물이 하늘에 있어야 마음도 하늘에 있음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빌립보서 3:14

장애물을 넘어 쫓대를 향해 달려가는 어려움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 하나님과의 연합을 고대함이 부활의 소망의 동기임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최고선'이 무엇인지 열심히 논쟁했습니다. 칼빈은 그중 플라톤만이 최고선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보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 연합을 이어 주는 거룩한 끈을 배운 적이 없어서, 연합의 실체는 몰랐다고 합니다. 신자는 나그네로 사는 지금도 이 행복을 맛보고, 그 맛이 날마다 연합을 더 사모하게 만듭니다. 연합이 완전한 열매를 맺는 날, 곧 부활의 날에 완전한 만족이 옵니다. 바울이 신자를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정의한 이유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이 피조물보다 덜 간절하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의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그분은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약속이 고난 속의 우리를 붙드립니다.

1. 인간의 최고선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2. 플라톤은 방향은 보았으나 실체는 몰랐다
3. 신자는 지금 맛보고, 부활 때 완전히 누린다
4. 피조물도 탄식하며 회복을 기다린다
5. 재림은 '우리의 속량'이 완성되는 날이다

빌립보서 3:8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쫓대를 지향하라는 권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13

뒤의 것은 잊고 앞으로 달려가는 바울의 모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립보서 3:20

신자의 표지: 하늘 시민권, 그리스도를 기다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서 8:19

피조물이 새롭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림

로마서 8:22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23

첫 열매 받은 신자도 '몸의 속량'을 기다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히브리서 9:28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12

(참조) 단번에 드리신 제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3. 신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

칼빈은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체가 무너진다고 강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전도도
믿음도 헛되고, 늘 위험과 미움 속에 사는 신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이 주제를 3권 끝까지 미룬 이유도 밝힙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으로
받은 독자가 한 단계 더 올라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처럼 온몸도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썩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실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성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머리와 지체는 나눌 수 없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다만 지체가 모든 면에서 머리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썩지 않음의 총명한 효과는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나타났고, 우리에게는 각자의 분량대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모두 우리와 연결됩니다. 그러니 시기를 따지지 말고 '각각 자기 차례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어서 칼빈은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성을 변호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겉먹은 여자들과 제자들이 증인이냐, 왜 빌라도와 제사장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칼빈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인들은 직접 보고 천사의 음성까지 들었고, 처음에 그 말을 헛소리로 여기던 제자들은 직접 가서 확인하고서야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증언은 오히려 믿을 만합니다. 무덤은 인봉되고 경비병이 지켰는데도 시신이 사라졌고, 뇌물을 받은 군인들의 '도난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인봉과 경비병의 침묵 또는 거짓말이 부활을 알리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도는 몸을 만지게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승천하셨고, 오백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을 넘어뜨리시고 스테반에게 나타나신 일도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많은 증거를 거부하는 것은 완악함일 뿐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1.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체가 무너진다
2. 몸의 부활은 인간 이성으로 믿기 어렵다
3. 두 기둥: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전능
4. 머리(그리스도)와 지체(신자)는 나눌 수 없다
5. 시기를 재지 말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라
6. 부활 증인의 '약함'은 오히려 신뢰의 근거다

고린도전서 15:13-14

부활이 없으면 전파와 믿음이 헛됨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15:19

부활이 없으면 신자가 가장 불쌍함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로마서 8:36

신자는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22

로마서 8:36이 인용한 원래 구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고린도전서 15:30

(참조) 시시각각 위험을 무릅쓰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고린도후서 4:8-9

(참조)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함

⁸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⁹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10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그 생명이 나타나려 함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5:16

머리와 지체의 연결: 우리 부활 = 그리스도 부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시편 16:10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 2:27

시편 16:10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됨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에베소서 1:20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아 계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빌립보서 3:20-21

우리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함

²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²¹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골로새서 3:4

(원문 표기) 성령의 같은 역사가 신자에게 미침

우리가 새명인사 그리스도께 사나되나신 그 때에 너희도 그의 함께 영광 중에

로마서 8:11

(참조) 내주하는 성령이 죽을 몸을 살리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한복음 11:25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서 15:23

첫 열매 그리스도, 그다음 그에게 속한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마태복음 27:66

무덤이 인봉되고 경비병이 지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누가복음 24:3

(참조) 무덤에 시신이 없었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28:6

천사: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가복음 24: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마태복음 28:11

(참조) 경비병들이 사실을 보고함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마태복음 28:12-13

뇌물 받은 군인들의 도난설

¹²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¹³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마태복음 28:15

도난설이 퍼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누가복음 24:38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의심을 직접 다루심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24:40

손과 발을 보이심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요한복음 20:27

(참조) 도마에게 만져 보라 하심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도행전 1:3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9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고린도전서 15:6

오백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심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요한복음 16:7

떠나셔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예언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도행전 9:4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넘어뜨리심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4.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활의 근거임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만물을 복종시키실 수 있는 분의 능력으로 우리 몸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활을 '자연에서 일어날 법한 일'의 잣대로 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씨앗 비유를 듭니다. 씨가 땅에서 썩어야 싹이 나는 것처럼, 자연 속에도 부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 영광을 돌리는 사람만이 부활을 참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입니다. 이사야, 다윗, 욥은 모두 절박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부활을 위로로 삼았습니다. 반대자들은 이 구절들이 부활과 무관하다고 해석하지만, 칼빈은 성도들이 곤경 속에서 붙든 위로가 바로 부활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도 같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소망의 근거를 부활의 그림에서 가져옵니다. 부활은 신자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구원 경험의 '원형'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싸움을 이어 가야 합니다. 맡긴 것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장차 올 생명을 미리 보여 줍니다. 그날 하나님은 공의로 갚으시고, 그리스도는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1. 부활은 자연법칙이 아닌 하나님 능력의 일이다
2. 그래도 씨앗처럼 자연 속에 부활의 그림이 있다
3. 능력에 놀라 영광 돌리는 자가 부활을 확신한다
4. 구약 성도들도 곤경 속에서 부활을 붙들었다
5. 부활은 모든 구원 경험의 원형이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36-38

씨앗 비유: 죽어야 살고, 하나님ی 형체를 주심

³⁶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³⁷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³⁸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사야 26:19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 티끌에서 노래함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시편 68:20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께로부터 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니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욥기 19:25-27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봄

²⁵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²⁶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²⁷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닦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에스겔 37:1-10

¹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²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³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⁵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⁶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

요한복음 5:28-29

무덤 속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옴

²⁸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²⁹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디모데후서 1:12

말긴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을 신뢰함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4:8

의로운 재판장이 주실 의의 면류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6-8

⁶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⁷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⁸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데살로니가후서 1:10

그날 그리스도가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심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부활에 대한 각종 반론들에 대한 반박. 5-9

5. 부활을 증거하는 매장 풍습과 천년왕국론자들의 오류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부르며 부활을 잊으려 합니다. 칼빈은 전도서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을 당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한 말로 읽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도 없고 영혼도 죽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류가 어디서나 매장을 거룩하게 여겨 온 것 자체가 새 생명에 대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족장들도 매장을 지켰으니 이 풍습을 오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매장은 실제로 아무 유익이 없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을 모두가 행동으로 고백한 셈이니 불신을 깨뜨리는 증거가 됩니다. 사탄은 부활의 기억을 시신과 함께 묻게 하고 교리를 왜곡하려 했습니다. 그 예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 년으로 제한한 천년왕국론자들입니다. 칼빈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 년'이 교회의 영원한 복이 아니라 교회가 땅에서 수고하며 고난받는 기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성경은 택함받은 자의 복과 악인의 형벌에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자의 복이 천 년으로 끝난다면 그 복을 받치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도 일시적인 것이 되어 버립니다.

또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은 자의하게 만드신 바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한 영혼의 멸망을 하나님의 위엄보다 크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1.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은 늘 있었다
2. 매장 풍습은 인류가 품은 부활의 그림이다
3. 칼빈은 '천 년'을 교회의 지상 고난기로 본다
4. 신자의 복도, 악인의 형벌도 끝이 없다
5. 죄의 기간보다 범한 위엄의 크기가 중요하다

전도서 9:4

죽음을 끝으로 보는 세상의 일반적 생각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전도서 3:21

사람과 짐승의 혼을 구별 못 하는 세상의 생각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마가복음 12:18

사두개인의 부활 부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누가복음 20:27

사두개인의 부활 부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도행전 23:8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함

고린도전서 15:12 이하

바울 시대에도 부활 부정이 있었음

¹²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

요한계시록 20:4

천년왕국론자의 근거 구절, 칼빈은 다르게 해석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마태복음 25:41

악인의 영원한 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46

영벌과 영생이 모두 영원함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13 이하

신자의 영생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묶여 있음

¹³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

칼빈은 지나친 호기심에서 나온 두 오류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영혼도 몸과 함께 죽었다가 같이 부활한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은 살지만 완전히 새 몸을 입는다는 생각입니다(7절에서 반박). 첫째 오류는 1권의 사람 창조 부분에서 다루었다고 밝히고 짧게 정리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혼을 잠깐 몸을 살리는 숨결로 만들고, 성령의 전을 없애며, 결국 몸을 영혼보다 낮게 만듭니다. 성경은 몸을 장막(천막)에 비유하며 죽을 때 그곳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는 말은 영혼이 계속 산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십자가 위 강도에게 하신 “오늘 낙원에” 약속, 그리고 예수님과 스데반이 영혼을 맡긴 기도도 같은 근거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중간 상태', 곧 죽은 뒤 재림 전까지 영혼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캐묻는 것은 정당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고 경고합니다. 영혼은 몸처럼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장소를 묻는 것도 헛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알면 됩니다. 신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안식을 누리며 약속된 영광을 기다리고, 모든 것은 재림 때까지 '미결'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유다서가 말하는 마귀들처럼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1. 영혼은 몸과 함께 죽지 않는다
2. 몸은 장막, 죽음은 장막을 떠나는 것
3. 죽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한다
4. 중간 상태의 장소·세부는 캐묻지 말라
5. 최종 영광과 형벌은 재림 때 확정된다

베드로후서 1:14

죽음을 장막을 벗는 일로 표현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고린도후서 5:1

땅의 장막이 무너져도 하늘의 집이 있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몸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고린도후서 5:8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함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히브리서 12:23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의 교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누가복음 23:43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원문의 24:43은 오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46

예수님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심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사도행전 7:59

스데반이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베드로전서 2: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요한복음 12:32

(참조) 그리스도가 그들을 받아들이심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누가복음 16:22

'아브라함의 품' — 성도 영혼의 복된 모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유다서 1:6

마귀들이 심판까지 흑암에 갇힘 = 버림받은 자의 처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 감추신 사실을 과연 어떤 선생이나 스승이 우리에게 알려 줄
수 있단 말인가?”

7.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지금 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주장을 칼빈은 '어처구니없는
오류'라고 부릅니다. 마니교도는 더러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영혼도 죄로 더러운데 하늘 소망에서 빠지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마니교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도 죄로 더러워진 것은 깨끗하게 못 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성경은 몸과 영을 다 깨끗이 하라 하고 심판도 '몸으로 행한 것'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하니, 지금 이 몸이 질적으로 바뀌는 것이지 새 몸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바울이 자기 피부를 손에 쥐고 말했다 해도 이보다 분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아뢰는 심판(이사야 인용), 무덤의 티끌에서 깨어난다는 다니엘서도 같은 결론입니다. 죽음은 타락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회복도 죽음을 향해 가던 바로 그 몸에 미칩니다.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은 것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전했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와 지체의 짝도 맞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몸이 아니라 십자가에 드러진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려 성도들이 일어난 사건은 우리 부활의 예고이자 보증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도 비슷한 예입니다.

1. 새 몸이 아니라 '이 몸'이 다시 산다
2. 하나님은 더러워진 몸도 깨끗하게 하신다
3. 성전이요 지체인 몸이 버려질 수 없다
4. 심판도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것이다
5. 그리스도도 같은 몸으로 부활하셨다

고린도후서 7:1

육과 영의 더러움을 모두 씻으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5:10

몸으로 행한 것대로 심판받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11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남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23

영·혼·몸이 재림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3:16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15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2:1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13:15

입술(혀)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디모데전서 2:8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

그리고 각 한 사람마다 본 마음을 가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고린도전서 6:19-20

몸과 영이 모두 하나님의 것

¹⁹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²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5:53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을 — 핵심 근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로마서 14:11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각자 자기 일을 아뢰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9:18

로마서 14:11이 인용한 맹세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사야 45:23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다니엘 12:2

땅의 티끌에서 자던 자들이 깨어남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사도행전 17:32

아덴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듣고 조롱함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마태복음 10:28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분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5:28-29

무덤 속에서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은 몸

²⁸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²⁹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2:19

“이 성전을 헐라, 사흘에 일으키리라” — 같은 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린도전서 15:12 이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함

¹²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

8. 몸의 부활에 대한 증거

칼빈은 이렇게 분명한 문제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단순한 신자들이 속지 않게 하려고 계속 말한다고 밝힙니다. 그가 보기에 '새 몸 창조설'의 뿌리는 썩은 시체가 되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몸의 부활을 소망하게 합니다. 세례는 미래 부활의 보증이고, 성찬도 입으로 받는 표징을 통해 부활을 확신하게 합니다.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약속과 짝을 이룰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몸이 음란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고, 하나님이 그 몸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정결한 삶, 거룩과 연결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닌 바울이 그 몸으로 상을 받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몸을 훈련하시고, 그 몸에 승리를 입히십니다. 족장들의 장례 의식도 미신이 아니라 믿음을 돕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무덤을 세심하게 마련했고, 야곱은 자기 뼈를 약속의 땅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새 몸을 받을 거라면 사라질 뼈에 대한 유언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산다', '잠잔다'는 말 자체가 같은 몸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잠자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1. 새 몸 창조설의 뿌리는 불신앙이다
2. 세례와 성찬은 몸의 부활을 보증한다
3. 몸으로 드린 순종은 몸이 상을 받는다
4. 부활 소망은 몸의 정결과 이어진다
5. '다시 산다'는 말 자체가 같은 몸을 뜻한다

골로새서 2:12

세례는 부활의 보증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받았느니라

로마서 6:13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19

지체를 의에 드려 거룩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8:11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 앞의 권면에 의미를 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13-14

몸은 주를 위해 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

¹³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¹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15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19

몸은 성령의 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20

몸은 값으로 산 것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갈라디아서 6:17

바울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빌립보서 3:20-21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함

²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²¹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4:22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마태복음 26:10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을 귀히 여기심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창세기 23:4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함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창세기 23:19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함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창세기 47:30

야곱이 자기를 조상의 묘에 묻으라 함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한복음 6:39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규범으로 몸을 훈련시키시니 또한 몸을 승리의
찬송으로 덧입하시는 것이다.”

이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짧게 다룹니다. 바울이 부활을 '비밀'이라고 불렀으므로, 지나친 철학적 추측은 삼가고 차분하게 말해야 합니다. 첫째 원칙은 같은 몸, 다른 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도 십자가에 드러진 그 몸이었지만, 질적으로 너무 뛰어나 다른 몸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사람과 짐승의 육체, 여러 천체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예를 듭니다. 몸의 본체는 그대로 있고, 썩는 성질을 벗고 썩지 않음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소를 다스리시므로, 흙과 물과 불이 삼킨 것을 되돌리라고 명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둘째, 재림 때 살아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되며, 먼저 죽은 신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칼빈은 본성이 바뀌는 변화도 일종의 죽음이라 부를 수 있다고 답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영혼과 몸의 분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 부활은 '비밀' — 추측보다 겸손히 다루라
2. 같은 몸이지만 질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3. 하나님은 흩어진 원소도 다시 모으신다
4. 재림 때 산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된다
5. 그 변화도 넓은 의미의 '죽음'이다

고린도전서 15:51

부활은 비밀, 모두 잠자지 않고 다 변화됨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39

육체마다 본질은 같고 질이 다름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고린도전서 15:41

천체마다 영광이 다름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51-52

같은 몸이 더 뛰어난 상태로 변함

⁵¹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⁵²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53-54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⁵³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⁵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6:21

땅이 덮었던 죽은 자를 드러냄(비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잤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52-53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

⁵²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⁵³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4:15-16

산 자가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함

¹⁵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¹⁶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히브리서 9:27

'한 번 죽는 것' — 반론의 근거, 칼빈이 해명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10. 악인의 부활

더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부활이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라면, 악인은 무슨 권리로 부활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일상의 예로 설명합니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생명나무뿐 아니라 보통 음식을 먹을 자격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고 풍성히 베푸십니다. 그것은 그들 소유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을 때 이미 멸망이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사는' 중간 상태를 두셨습니다. 악인이 우연히 부활해서 영광을 받는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반대로 그냥 소멸해 버린다면 너무 가벼운 형벌입니다.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스스로 불러온 진노를 받습니다. 바울도 벨릭스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대부분 부활을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영광과 함께 말합니다. 재림의 주된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도 '영원히 사는 것'만 언급합니다.

1.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2. 악인이 받는 혜택은 핑계를 없애기 위함
3. 악인의 부활은 영광이 아니라 심판을 위함
4. 소멸은 오히려 가벼운 형벌이다
5. 재림의 주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로마서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22

(참조)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25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5:29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25:32

양과 염소를 구분하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태복음 5:45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심 — 일반적 혜택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도행전 24:15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형벌의 상태. 10-12

11. 영원한 복락

사망이 삼켜진다는 예언은 부활 때 이루어지므로, 늘 부활의 목표인 영원한 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복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알 뿐이고, 그날에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물질의 이미지를 빌려 대략 묘사했습니다. 칼빈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선의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행복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넘어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능력과 의를 나누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며, 우리를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모든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이 주제에서도 절제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은 유익이 없고, 해로운 질문은 위험한 상상으로 이끕니다. 그래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은사가 다르듯 하늘의 영광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선물에 면류관을 씌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1. 영원한 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2.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상급이다
3.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4. 하늘 영광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5. 그 차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완성이다

이사야 25: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심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호세아 13:14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고린도전서 15:54-55

사망이 승리에 삼켜짐

⁵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⁵⁵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3:12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일서 3:2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을 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창세기 15:1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시편 16:5-6

⁵여호와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⁶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7:15

주의 형상으로 만족함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베드로후서 1:4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10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심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19-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¹⁹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²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마태복음 19:28

사도들이 열두 보좌에 앉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디모데후서 4:8

바울을 위해 예비된 면류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태복음 19:21

(참조) 하늘에 예비된 보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니엘 12:3

지혜로운 자는 궁창처럼, 별처럼 빛남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디모데후서 1:18

그날에 공흠을 입기를 비는 기도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공흠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마태복음 19:29

주를 위해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경건한 사람은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받아들이고, 가시 같은 질문에는 작별을 고합니다. 칼빈은 쓸데없는 문제를 스스로 캐지 않을 뿐 아니라, 답을 해서 남의 경박함을 부추기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와 사도, 사도와 순교자, 처녀와 기혼 여성 사이에 하늘 영광이 얼마나 다른지를 따졌습니다. 또 “먹지도 않을 텐데 세상을 왜 회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칼빈은 보기만 해도, 쓰지 않고 알기만 해도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답합니다. 이 땅에서는 병과 무절제 때문에 좋은 것도 제대로 못 누리지만, 그날의 순전한 기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금속 찌꺼기도 회복되느냐”는 질문에는, 죄로 생긴 결함이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바울과 함께 기다린다고 답합니다. “자녀의 복이 끝나면 무엇이 좋으냐”는 질문에는, 자녀의 복은 지금의 자연 질서에 해당하고 완전한 상태는 다르다고 답합니다. 결국 이런 호기심은 끝없는 미로입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그날까지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일어날 일은 궁금해하면서 하늘에 어떻게 가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 성경이 멈춘 곳에서 함께 멈추라
2. 하늘의 서열 따지기는 경박한 호기심이다
3. 회복된 세상은 보기만 해도 기쁨이다
4.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
5. 하늘 구경보다 하늘 가는 길이 먼저다

마태복음 22:30

부활 때 천사들처럼 됨 — 질문자들의 근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로마서 8:22

피조물이 회복을 기다리며 탄식함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상태

악인이 받을 형벌의 무게는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 슬피 울며 이를 감,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벌레 같은 물리적 비유를 씁니다. 성령께서 이 표현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이 두려움에 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이미지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생각을 모으라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비참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대적하는데 피할 길이 없다는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닿는 모든 것을 삼키는 불과 같고, 모든 피조물이 그 심판을 집행하러 나섭니다. 선지자들이 해와 달과 우주의 변동을 말할 때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을 미리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시편 90편을 언급합니다. 한 번 보시는 것만으로 인생을 흐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미약한 자기 백성은 격려하셔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전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권은 이렇게 경고와 격려를 함께 남기고 끝납니다.

1. 지옥의 묘사는 비유지만 과장은 아니다
2. 핵심 비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
3. 하나님의 능력이 대적이 되는 두려움
4. 모든 피조물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
5. 신자에게는 십자가 지고 전진하라는 격려

마태복음 8:12

바깥 어둠, 슬피 울며 이를 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3:12

꺼지지 않는 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가복음 9:43

꺼지지 않는 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사야 66:24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 30:33

도벳 — 예비된 심판의 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는즉 여호와와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8-9

주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⁸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⁹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29

해와 달과 우주의 변동으로 심판을 보여 줌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시편 90:7 이하

하나님의 진노 앞의 인생, 동시에 백성을 격려

⁷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

고린도전서 15:28

하나님이 만유 안의 만유가 되실 때까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오해와 반론

용어

최고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고 궁극적인 좋음. 칼빈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본다.

몸의 부활

죽은 뒤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재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시는 것.

값을 치르고 묶인 데서 풀어 주는 것. 바울은 재림 때 우리 몸이 완전히 풀려나는 것을 이렇게 부른다.

첫 열매

추수 때 먼저 거두는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이 뒤따를 우리 부활의 시작이자 보증이라는 뜻이다.

중간 상태

죽은 뒤부터 재림 때까지 영혼이 몸 없이 있는 기간.

아브라함의 품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함께 안식하는 복된 모임을 가리키는 성경 표현.

천년왕국론

요한계시록 20장의 '천 년'을 그리스도가 땅에서 다스리는 문자적 기간으로 보는 견해. 칼빈은 성도의 복을 천 년으로 제한한 초대교회의 견해를 비판했다.

마니교

3세기 무렵 시작된 종교로, 물질과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다.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한 무리로,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구원은 부활에서 완성되므로, 부활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음의 열매를 누린다.
- 부활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부활(머리와 지체의 연합)과 하나님의 전능에 기초한다.
- 영혼은 죽음 뒤에도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고, 재림 때 지금 이 몸이

- 악인도 부활하지만 심판을 받으러 부활하며, 신자의 복과 악인의 형벌은 모두 영원하다.
-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지 않은 세부는 캐묻지 않는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